

## News

### 빛 탕감해달라...채무조정 신청 15% '쑥'

매일경제

신용회복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 2분기 신용회복지원 실적`에 따르면 2분기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는 모두 3만4,666명으로 전년 동기(3만124명)에 비해 15.1% 늘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에도 신청자가 크게 몰리는 분위기

### 4대 은행 빚 보증만 50조...코로나궤 리스크 관리 '도마'

데일리안

금감원, 올해 1분기 말 기준 4개 은행들의 확정·미확정 지급보증은 총 51조2,359억원으로 1년 전(476조839억원)보다 8.8%(4조1,52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은행은 주로 신용장 거래를 비롯한 각종 무역거래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기업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 사모펀드 못파는 은행들... "방카슈랑스 규제 풀어달라"

이데일리

방카슈랑스 25%를 은행점포에서 파는 보험상품의 경우 같은 보험사 상품이 전체 실적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올해 네 차례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를 건의...방카슈랑스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 구멍 뚫린 하늘, 동등 뜯 차...침수차 피해도 '역대급'

머니투데이

6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손해보험사의 침수피해 접수차량은 총 3,493대...전년 기간 443대를 기록...약 9배 가량 증 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피해액도 가파르게 증가...현재까지 접수된 추정손해액은 약 350억원대...전년 같은 기간에는 24억원

### '나이롱환자' 막는다...후보험 진료심사 강화

매일경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가 강화...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 국토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

### 데이터 3법 시행...보험업계, 빅데이터 시장 공략 강화

뉴시스

한화생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입한도를 확대·시행한 후 연간 100억원의 보험료 추가가입 효과...DB손해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하는 IFDS(보험사기적발시스템) 구축 익명처리한 데이터가 오픈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이 더 각광받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서비스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

### 미래에셋대우 2분기 영업이익 3천871억원... "역대 최대실적"

연합뉴스

회사는 국내외 채권·파생상품 등 운용 수익이 증가하고 국내 주식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부문별 수익이 고르게 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용 수익은 3천198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무려 479.2% 증가...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전 분기보다 32.5% 늘어난 1천899억원

### NH투자 이달말 이사회서 옵티머스 투자자 지원안 재논의

연합뉴스

옵티머스펀드 관련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방면해 정영채 사장 등 임원진을 만나 신속한 보상을 촉구...27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피해 고객 지원방안을 다시 논의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가입 고객에게 원금의 70%를 선지급...해법이 도출될 경우엔 27일 이전이라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피해 고객 지원안을 상정한다는 방침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